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듬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

	02. 08	02. 15	02. 22
대 표 기 도	최종열 성도	정환영 형제	이상호 목사
성 경 봉 독	최종열 성도	정환영 형제	최상우 형제

교회소식

2월 축복 인사 : 하나님 안에서 함께 순종합시다

1.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졸업연주 - 장래황 형제(3일) 오후 8시, Konzertsaal(음대)
4. 출장 - 이에준 형제(마인츠, 2월 한 달)
5. 담임목사는 교단 수련회 참석차 출타합니다(2월 5~7일, 뉘른베르그)
6. 예배 후 친교실에서 모입니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주일학교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합계(Euro)	
온라인헌금(1월)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 2:10)”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Jin Soon Chung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홈페이지 :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입례찬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양 Gemeindelied	-----	다같이
기 도 Gebet		이상호 목사
성경봉독 Predigttext	암 3 : 1 - 7(구p1276) (Amos 3:1~7)	김정규 형제
특별찬양 Sonderlied		김정규 형제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가족환영	이상호 목사
헌금기도 Kollektgebet	-----	이상호 목사
설 교 Predigt	나만 아시는 하나님	이상호 목사
성찬예식 Abendmahl	살아계신 주, 눅22:19~20	담임목사
*파송찬양Abschlusslied	주와 같이 길 가는 것(1,3절)	다같이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아침은 섬김입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 봉사자와 청년 섬김이들, 청년들의 진로(진학, 취업, 결혼)을 위해
2.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
3. 황희순 집사님, 백승민 자매에게 회복의 은총이 임하도록
4.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가 되도록 - 선교, 구제, 영성훈련에 힘쓰는 교회

나만 아시는 하나님

아모스 3장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 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지를 분명히 밝히는 장입니다. 이 말씀의 중심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순히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로 대하지 않으시고, 언약 안에서 특별히 아신 백성으로 대하십니다. 그러나 그 특별함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며, 그 책임을 저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경고로 임합니다.

첫째, 나는 너를 특별히 아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암 3:2)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의 인지가 아니라 언약적 사랑과 선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아셨기에, 그들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청년 신앙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 말씀을 안다는 것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진 자’로서 더 분명한 거룩과 순종을 요구받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섭리와 계획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3장에는 연속적인 질문들이 등장하는데, 사자와 먹이, 나팔과 두려움, 재앙과 하나님의 행하심은 모두 우연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와 현실 속에서 아무 일 없이 말씀하지 않고, 반드시 목적과 계획이 있으며, 그 계획은 선지자를 통해 계시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이면서 동시에 회개의 기회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흔들림과 위기도 하나님의 섭리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다.
3장은 강한 심판의 언어로 가득하지만, 그 목적은 멸절이 아니라 돌이킴으로, 우상을 의지하는 제단을 무너뜨리지만, 그것은 참된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약을 파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을 다시 세우기 위한 거룩한 수단으로, 생활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책망 역시 회복을 향한 부르심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소모임을 위한 질문

1. 하나님께서 “나만 아신다”고 하실 때, 내 삶은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
2.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두려움은 무엇인가?